

군사과학대학원, 무기체계개념 학술강연회 개최

- 미래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 연구에 활력



◀ 무기체계개념 특화연구센터는 미래형/한국형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체계기술분석 및 성능예측기법 연구, 개발대상 무기체계의 기술적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핵심기술의 군사적 활용체계 정립을 위한 핵심기반기술 획득방안 및 대안 등을 연구하며 연구결과를 관련 기관에 전파/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군사기술혁신(MTR: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의 일익을 담당함과 아울러 향후 과학기술 집약형 군발전에 대비한 국방과학기술 전문가를 육성하게 된다

무기 체계개념 학술강연회 및 특화연구 중간발표가 육군사관학교 소재 군사과학대학원 무기체계개념 특화연구센터 주관으로 9월 19일 군·산·학·연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도상호 국방과학연구소 제1부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선진국들이 자국의 군사과학 기술을 안보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도 급변하는 주변정세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국방예산 획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무기체계 개발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법에 의한 무기체계 개념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미래 한반도 전장환경에 적합한 우리의 전략/전술 개념에 바탕을 둔 독자적인 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할 시기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학술 강연에서 美 육군 Dale A. MacPherson

은 “The Role of the US Army in Weapons Development”라는 주제로 미군의 수직적 조합(Vertical Team)에 의한 무기체계 개발 및 획득 과정 개선 방안을 소개하였고, 이어 국방부 획득기획과장인 채우석 박사는 「국방연구개발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저변확대를 바탕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위주로 한 국방연구개발 활성화, 민·군 겸용기술 개발, 성능개량 활성화 등에 의한 전반적인 기술력 향상과 방위산업 소요창출을 위한 노력의 증대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무기체계 특화연구센터는 국방부가 서울대(자동제어), KAIST(전자광학), 포항공대(전자파)에 이어 올해 1월 네번째로 위촉한 특화연구센터로 기존 3개 특화센터 연구가 부품개발에 역점을 둔 것이라면 무기체계 연구센터는 체계개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체계개념형성연구, 개념요구능력서(ROC), 체계개발개념연구 등 복잡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다.